

출토유물을 통한 원당사지(元堂寺址)의 조성시기와 성격 고찰

현 문 필*

요 약

원당사지에 대한 조선 중기 이전 문헌기록 부재와 관련 연구자료의 부족 등은 유적 조성시기 및 성격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운 장애가 되어 왔다. 다행스럽게도 원당사지 발굴조사에서 건물지와 함께 유물들이 발견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었다.

이 논문은 원당사지 출토유물의 분석을 통해서 유적 조성시기와 그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유적 조성시기를 규명하기 위해 원당사지에서 발견된 '청자해무리굽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해무리굽완의 4형식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출토된 두 형식의 청자해무리굽완 중 한국식해무리굽완 제작시기를 유적의 상한시기로 보았다. 한국식해무리굽완이 왕성하게 제작되던 11세기 전·중반의 생산지역은 서남해안 일대와 경기도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적어서 고려청자의 소비계층은 왕실·중앙귀족·승려·지방호족 등에 제한적이었다. 이때의 해무리굽완은 어떤 유적보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조사팀장

도 사찰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당시 제주의 고려청자 소비처도 관아·사찰·지방호족 등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당사지의 입지조건이나 한 공간 내에서 고려 전기부터 후기에 걸쳐 약 400여 년간 끊임없이 이루어진 고려청자의 소비경향 등으로 볼 때 관아나 지방호족의 거주지보다는 사찰유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원당사지는 11세기 전반에서 중반 사이의 창건시기를 갖는 사찰유적으로 판단되며, 최초 사찰의 창건에는 원당사의 구전(口傳)에 등장하는 고려 후기의 14세기 인물인 기황후(奇皇后)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주요 색인어: 해무리굽완[日暈底碗], 상한시기(上限時期), 창건시기(創建時期), 소비계층(消費階層)

I. 머리말

원당사지는 과거 ‘원당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알려진 곳으로, 그 터에는 관음사의 말사인 ‘불탑사(佛塔寺)’가 자리하고 있다. 원당사는 법화사(法華寺), 수정사(水精寺) 등과 함께 고려시대 제주의 대표적인 사찰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창건시기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단지, “고려 후기 공녀(貢女)로 원나라에 끌려가 황제 순제(順帝, 1320~1370)의 총애를 받은 기황후(奇皇后, ?~?)가 태자를 얻기 위해 사찰을 짓고 불공을 올린 후 태자를 얻었다”는 원당사에 대한 구전(口傳)과 고려 후기 양식으로 추정되는 <불탑사오층석탑(보물 제1187호)>의 존재로 인해, 고려 후기인 14세기경에 창건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당사의 창건은 여러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기황후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¹⁾

한편, 원당사는 중종 25년(1530)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제주지역 15개 사찰²⁾ 기록에는 보이지 않다가 효종 4년

1) 고창석은 충렬왕 26년(1300) 기황후가 탐라에 목장을 설치하고 수정사와 원당사를 창건했다는 『탐라기년(耽羅紀年)』과 『제주도실기(濟州道實記)』 등에 보이는 내용은 각종 사료에 기황후는 원나라 순제의 공녀로 들어간 것이 충숙왕 복위 2년(1333)이고, 그녀의 몸에서 황태자가 태어난 것이 동왕 복위 8년(1339)으로 기록되어 있어 앞의 기록들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충렬왕 26년 기황후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의 충렬왕 26년 황태후가 또 말을 방목하였다는 기사에서 황태후가 기황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된 데는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관덕정중수기(觀德亭重修記)』에 “고려 말에 기황후가 목장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창석(2007), 「제주도내 사찰의 창건시기에 대한 관건」(『제주역사연구』, 제주: 세림, pp.162~198.)

2) 제주목에 존자암(尊者庵), 월계사(月溪寺), 수정사(水精寺), 묘련사(妙蓮寺), 문수암(文殊庵), 해륜사(海輪寺: 西資福), 만수사(萬壽寺: 東資福), 강림사(江臨寺), 보문사(普門寺), 서천암(逝川庵), 소림사(小林寺), 관음사(觀音寺) 등 12개 사찰이, 정의현에는 영천사(靈泉寺), 성불암(成佛庵) 등 2개, 대정현에는 법화사(法華寺) 등 1개 사찰, 모두 15개 사찰이 기록되어 있다(『신증동국輿地勝覽』 卷38, 濟州牧·旌義縣·大政縣, 佛宇條).

(1653)에 간행된 『탐라지(耽羅志)』³⁾에 처음으로 등장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원당사가 조선 중기 이전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적음은 물론, 고려 후기의 사찰 존재마저도 의심을 받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두 차례에 걸친 원당사지의 발굴조사에서 나온 도자기·기와들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들이 즐비하다. 이로써 원당사지는 조선 중기 이전의 문헌자료에 언급되지 않으나 고려시대에 조성된 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원당사지의 문헌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분석과 연구는 그 존재를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규명해 보고자 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문헌자료의 부족을 해결하는 유력한 방법인 동시에 고고학적으로 드러난 유구와 유물을 통해 문화를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당사지에서 출토된 많은 고려청자들 중에서도 ‘해무리굽완’이 중심인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물들을 대상으로 ‘원당사지는 과연 언제 조성되었고, 그 성격은 무엇이었을까?’라는 문제의 초점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해무리굽완의 조형적 특징

1. 우리나라 해무리굽완의 종류와 제작시기

해무리굽완[日量底碗]은 굽의 생김새가 마치 ‘해무리’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중국에서는 ‘옥벽저(玉璧底)’, 일본에서는 ‘자노메고다이[蛇の目高臺]’라고 부른다. 이 독특한 모양의 굽 형식은 중국 당나라 유적이거나 가마터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8세기

3) 『耽羅志』, 濟州, 佛宇條, “元堂寺 在東二十里”

후반에서 9세기 중엽에 이르는 100여 년간 사용되다가 사라져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서해안과 남서해안 일대의 가장 이른 시기로 보이는 초기청자 가마터에서도 이 독특한 굽 모양의 해무리굽완이 발견된다.

우리나라 해무리굽완은 시기적인 차이에 따라 굽지름·접지면·내저원각(內底圓刻) 등의 크기 및 형태가 조금씩 변하면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특징에 따라 ①선해무리굽완(A형식), ②중국식해무리굽완(B형식), ③한국식

해무리굽완(C형식),

④퇴화해무리굽완

(D형식) 등 크게 4

형식으로 구분되고

있다.(그림 1)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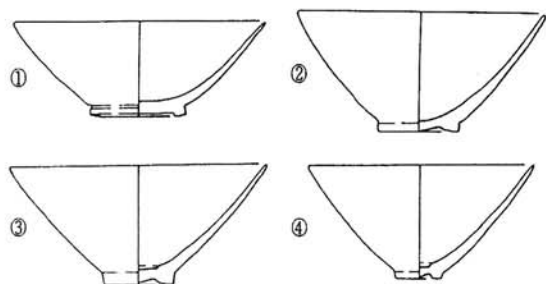
식은 그릇 안바닥

이 곡면(曲面)이고

굽지름이 5.0~6.0

cm에 접지면의 폭

은 0.5~0.8cm이다.



① 선해무리굽완(A형식) ② 중국식해무리굽완
③ 한국식해무리굽완(C형식) ④ 퇴화해무리굽완(D형식)

그림 1. 우리나라 초기청자
해무리완 종류

B형식은 안바닥이 곡면이지만 A형식에 비하여 굽지름이 4.5~5.5cm로 좁아지는 대신 접지면은 0.9~1.0cm로 보다 넓어진다. C형식은 굽지름이 5.0~6.0cm 내외이고 접지면이 0.9~1.4cm 정도인데, 앞선 두 형식과 달리 그릇 안바닥에 3.0~4.0cm 정도의 내저원각이 생겨나는 것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마지막 단계인 D형식에 이르면 C형식 완의 크기가 변화되어 굽지름은 4.5cm이고 접지면이 0.8~0.9cm로 작아져, 해무리굽완의 여운만 남게 되고 내저원각 지름도 3.0cm 정도로 좁아진다.

해무리굽완은 고려자기 발생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자료로 처음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청자 연구자들에 의해 9세기설(9세기 전반·9세기 후반)과 10세기설(10세기 초·10세기 전반·10세기 후반)로 양분되고 있다.

그러기에 각 형식의 제작시기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렇듯 해무리굽완 제작의 개시(開始)에 대한 시간적인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들은 고려시대 해무리굽완의 시기적인 선후관계에 의한 변화과정을 대체로 A형식→B형식→C형식→D형식의 순차적인 배열 흐름⁴⁾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한 선해무리굽완인 A형식 제작시기는 곧 우리나라 자기발생의 시기라 하겠다. 최근에 조사된 우리나라의 9세기 유적에서 중국제인 청자 또는 백자가 발견된 바는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된 청자나 백자가 한 점도 출토된 예가 알려진 것이 없고, 아직까지 고려 초기 유적 및 가마터 등의 출토양상에서도 9세기 자기발생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기발생은 10세기 전반에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초로 등장하는 선해무리굽완인 A형식은 10세기 전반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뒤이은 중국식해무리굽완인 B형식은 10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한국식해무리굽완인 C형식은 10세기 말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1세기 전·중반에 왕성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국식해무리굽완이 변화된 퇴화해무리굽완인 D형식은 11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무리굽완의 마지막 단계인 D형식은 11세기말·12세기 초에 이르면 그 여운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거의 소멸하게 된다.⁵⁾ 이때부터 고려청자의 요업(窯業)은 새로운 기종(器種)과 더불어 음각·양각·철화·퇴화 등의 다양한 장식기법들이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등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게 이른다.

위에서 보듯 고려시대 해무리굽완은 10세기 전반부터 11세기 후반까지 제작되다가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반에 이르면 완전히 사라진, 고려 초·전기를 대표하는 기종의 하나이다. 그만큼 해무리굽완은 제작 및 존속기간이 뚜렷한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시기 문제뿐만 아니라 고려

4) 초기고려자기 가마터 발굴조사에서 층위상으로 해무리굽완의 변화과정이 밝혀진 곳으로는 용인 서리,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암리 등 경기 지역의 가마터가 대표적이다(호암미술관(2000), 『용인서리고려백자요』; 해강도자미술관(2000), 『방산대요』; 경기도자박물관(2004),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5) 장남원(2006), 『고려 중기 청자연구』 이화연구총서 3, 서울: 해안, pp.318~320.

초·전기에 해당하는 사찰터[寺址]·건물지·성지(城址)·분묘(墳墓) 등 유적의 시기를 비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자료가 된다. 원당사지 출토 청자해무리굽완 역시 파편에 불과하나 위에서 살펴보았던 우리나라 해무리굽완 변화과정 속의 시간적인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면 유적의 상한(上限)시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원당사지 출토 해무리굽완의 특징과 시기 검토

원당사지의 발굴조사에서는 청자·분청사기·조선백자·기와 등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는 기벽이 사선이고 굽 형태가 ‘해무리’의 특징을 보이는 ‘청자 해무리굽완’ 8점(그림 2)이 포함되어 있다.⁶⁾ 앞서 살펴보았듯 고려시대 해무리굽완은 4형식으로 나눌 수 있고, 각 형식은 가마터에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당사지 출토 청자해무리완은 어느 형식에 포함될까? 우선 원당사지에서 나온 것을 해무리굽완의 분류기준인 내저원각·굽 크기·접지면의 폭 등 세부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 볼 때 크게 내저원각경과 접지면 폭이 큰 것(그림 2의 ①~③)과 작은 것(그림 2의 ⑤·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전자를 I 형식이라고 하고 후자를 II 형식이라고 한다면, I 형식은 내저원각경이 3.5~3.8cm이고 접지면이 1.2~1.5cm인 것, II 형식은 내저원각경이 2.4~2.8cm, 접지면은 0.5~0.7cm 정도로 좁아졌다.

원당사지 I 형식의 청자해무리굽완은 그릇 안바닥에 원각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 내저원각이 없는 선해무리굽완인 A형식과 중국식해무리굽완인 B형식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인다. 게다가 내저원각이 있는 퇴화해무리굽완인 D형식보다는 접지면이나 내저원각경의 크기가 크다. I 형식은 접지면이 1.0~1.4cm 정도이고 내저원각경이 3.0~3.5cm 정도인 한국식해무리굽

6) 제주문화예술재단(2006), 「원당사지」,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pp.3~146.

완인 C형식에서 동일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II형식은 굽지름과 접지면, 그리고 내저원각경의 크기가 I형식보다 작아지는 등 한국식 해무리굽완의 여운만 간직하고 있어, 굽지름이 4.5cm이고 접지면은 0.8~0.9cm인 퇴화해무리굽완 D형식을 닮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원당사지에서 출토된 I형식 해무리굽완은 C형식인 한국식해무리굽완, II형식 해무리굽완은 D형식인 퇴화해무리굽완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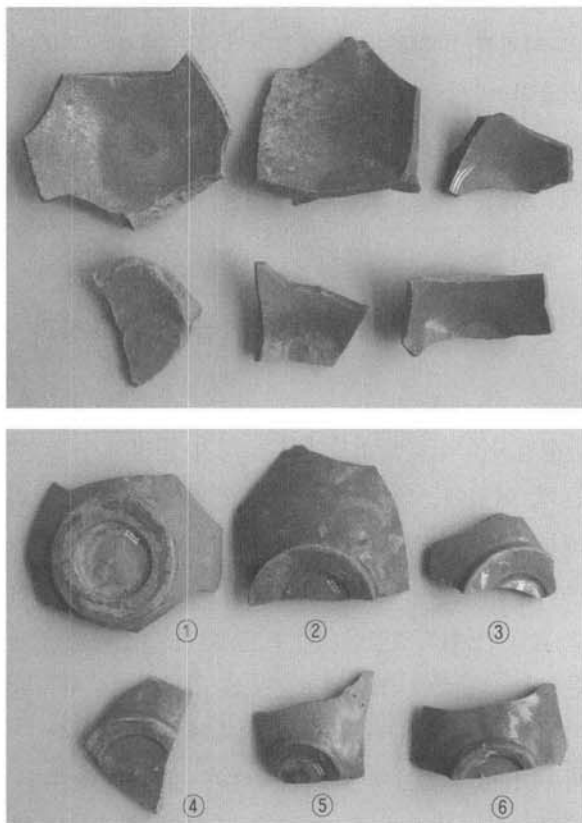


그림 2. 청자해무리굽완, 원당사지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된다. 원당사지에서 두 형식보다 선행하는 선해무리굽완인 A형식과 중국식 해무리굽완인 B형식은 아직까지 발견된 예가 없어 출토유물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C형식의 한국식해무리굽완으로 판단된다.

원당사지에서 출토된 C형식과 같은 한국식청자해무리굽완은 전남 강진 용운리 10-1호·칠량면 삼흥리, 고흥 운대리, 해남 신덕리, 전북 고창 용계리·반암리, 경북 칠곡 창평리 등 가마터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이들 가마터는 해무리굽완의 형식 중 C형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10세기 말

에서 11세기 초에는 A·B형식의 해무리굽완이 공반되기도 한다. 그런데 ‘太平壬戌二年(1022)’명 기와에 의해 운영시기가 11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고창 용계리 가마터⁷⁾의 경우에는 내지원각이 있고 접지면이 넓은 전형적인 한국식해무리굽완이 주로 생산되었던 것에 비해 선해무리굽완이나 중국식해무리굽완 같은 계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시기를 전후해서 한국식해무리굽완의 본격적인 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의 고흥 운대리나 해남 신덕리, 칠곡 창평리 등 해무리굽완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던 가마터에서는 청자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되 흑유자기(黑釉磁器)가 함께 만들어지기도 했다. 원당사지의 발굴조사에서도 같은 구역에서 한국식해무리굽완과 흑유편병(그림 3)이 조합을 이루며 출토되고 있어서 관심을 끈다.



그림 3. 흑유편병. 원당사지.
국립제주박물관소장

이 흑유편병은 구연부와 굽 모양은 알 수 없지만 몸체를 편평하게 두드리고 어깨와 목의 경계부분에 돌대(突帶)가 있는 전형적인 초

7) C형식 해무리굽완이 주로 생산되었던 고창 용계리 청자가마터의 발굴조사에서는 1기(基)의 진흙가마와 더불어 인근에서 건물지가 발견 되었다. 건물지에서 ‘太平壬戌二年(1022)’명이 적힌 어골문(魚骨文)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와 문양이 유사한 기와가 가마의 불통 북벽면에서 발견된 바 있어 조사된 가마터를 1022년경 즈음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았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원(1985), 『고창 아산댐수몰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이종민(2002)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벽돌가마의 운영시기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경이면 끝나고 뒤이은 진흙가마의 운영시기는 11세기 초반경이면 가능하리라 판단하여 고창 용계리의 운영시기는 1022년이 절대연대가 아니라하더라도 11세기 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기 광구병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런 특징은 초기청자 가마터에서 한국식 해무리굽완과 함께 제작되던 흑유편병의 모습과 유사하다. 한국식해무리굽완과 흑유편병이 공반하는 양상은 어떤 곳보다도 남서부지역에 위치한 고흥 운대리와 해남 진산리·신덕리 등의 가마터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들 가마의 활동시기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의견을 달리하나, D형식 해무리굽완이 공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하한(下限)시기를 늦게 보아도 11세기 중후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외에도 소위 ‘녹청자(綠靑磁)’라고 부르는 조질청자(粗質靑磁)들도 발견되는데, 대접·접시 등과 같은 일상용기(日常用器) 위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모래 알갱이가 섞인 거친 태토(胎土)로 그릇 형태를 만들고 암록색의 유약을 시유한 후, 황갈색 내화토(耐火土)를 받쳐 만든 녹청자대접이 있다.(그림 4) 이와 같은 녹청자대접류는 해남 진산리 일대 가마터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그 중에서 진산리 17호 가마터 발굴조사에서 대접·접시·완류 등이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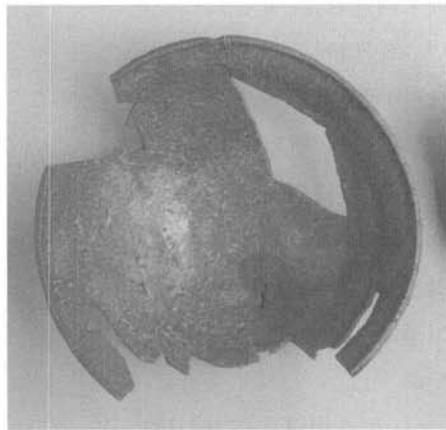


그림 4. 녹청자대접, 원당사지
국립제주박물관소장

출토된다.⁸⁾ 이곳 대접류들은 원당사지에서 출토된 녹청자대접에 보이는 태토(胎土)·유색(釉色)·굽·받침수법 등의 특징과 거의 같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진산리 17호 가마터에서는 D형식인 퇴화해무리굽완의 존재만 확인될 뿐, C형식인 한국식해무리굽완은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녹청자와 한국식해무리굽완이 공반되지 않는 양상은 여러 소비지(消費地)유적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가마터에서 생산된 청자를 소비지로 운송하다가 바다에 수장된 유적에서 잘 살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

8) 목포대학교박물관(1992),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는 것으로 진산리 가마터 생산품인 전남 완도 어두리(漁頭里) 앞바다에서 인양된 녹청자류와 신덕리 가마터 생산품으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十二東波島) 해저유적의 청자류가 있다.⁹⁾ 이들 유적은 대접·접시·병 등의 기종과 함께 해무리굽완류는 D형식만 확인되었다. 그 시기는 대체로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반으로 추정되고 있어 원당사지의 D형식 청자해무리굽완과 녹청자의 존속시기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겠다.

물론 일부 가마터에서는 11세기 후반 일정기간 동안 C·D 두 형식의 해무리굽완이 함께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때 제작된 C형식은 전형적인 한국식해무리굽완보다 5.0cm 정도 굽지름이 줄어들고 내저원각경도 이전보다 다소 작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사실은 경기도 용인 서리 고려백

자가마터의 발굴조사에서 퇴적의 선후관계가 명확한 4기(期)층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C형식의 한국식해무리굽완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III기층의 경우 D형식이 중심인 IV기층에 가까운 퇴적의 위쪽으로 갈수록 내저원각경과 굽지름 및 접지면의 폭이 작아지는 예(그림 5의 ②)가 다수를 차지한다.¹⁰⁾ 그런데 원당사지에서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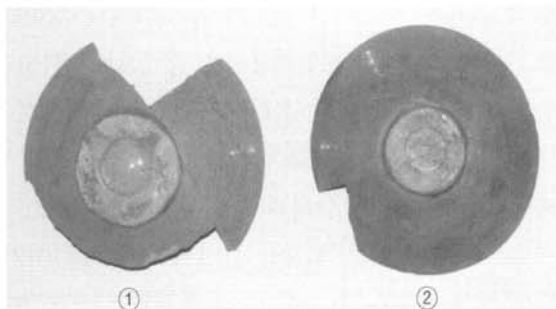


그림 5. 백자해무리굽완
용인서리 가마터 III기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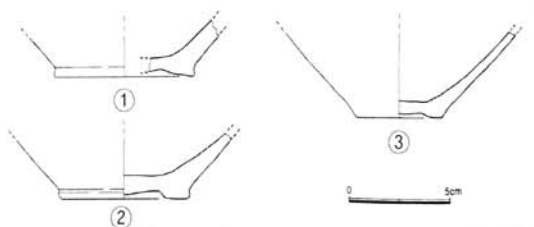


그림 6. 원당사지의 C·D형식 청자해무리굽완

9) 문화재관리국(1985), 『완도해저유물』.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5),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10) 전승창(2001), 『용인 서리요지 출토유물 검토』,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pp.15~32.

토된 C형식(그림 6의 ①·②)은 대개 6.0cm 내외의 것들로서 D형식 해무리 굽완(그림 6의 ③)과 함께 제작되던 한국식해무리굽완의 특징과 달라서 제작시기의 선후관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원당사지 C·D 두 형식의 청자해무리굽완은 후대까지 내려와 같은 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기에 생산된 것을 제작시기와 큰 차이가 없이 들여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접시·잔 등 일상용기로 구성된 녹청자류도 품질이 조잡한 것들이라서 후대까지 전해져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원당사지에서 수습된 C형식과 D형식 청자해무리굽완은 안정된 층위에서 상대적 선후관계 속에서 수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보았던 것처럼 출토유물의 조합상으로는 가마터의 제작경향으로 볼 때 두 형식 간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원당사지의 발굴 조사에서는 한국식해무리굽완을 중심으로 한 고려 전기뿐만 아니라 뒤이은 중기와 후기에 제작된 고려청자들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원당사지의 고려청자 소비계층은 고려시대 전시기에 걸쳐 고려청자 요업의 시대별 상황과 궤를 같이하면서 소비경향도 바뀌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 청자들은 전세품(傳世品)이기보다는 가마터에서 생산된 것을 제작시기와 별 차이 없이 가져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원당사지의 상한시기 및 성격 검토

앞서 여러 가지 특징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원당사지 출토의 많은 고려청자 가운데에서도 유적 조성의 상한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C형식의 한국식해무리굽완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물론 원당사지의 발굴조사가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면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보다 이른 시기의 자료도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다른 유적의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초기청자 출토의 양상을 견주어 보면, 원당사지에 대한 지금까지 조사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단계로 원당사지는 한국식해무리굽완의 소비계층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고려자기 가마터에서 한국식해무리굽완이 생산되던 시기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중반까지라는 점이 원당사지 상한시기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이한 것은 원당사지 지표 및 발굴조사에서 탐라시대에 해당하는 적갈색경질무문 토기가 한 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원당사지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조성된 유적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함께 중국식해무리굽완 단계 유물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통해 보았을 때, 원당사지는 한국식해무리완굽이 왕성하게 제작되던 시기에 조성되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원당사지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설이 조성되었고, 그 시기는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한국식해무리굽완의 중심시기인 11세기 전반에서 11세기 중반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고려 전기, 원당봉 기슭에 새롭게 들어선 시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선 원당사지 조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유적 성격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핵심적으로 참여했거나 거주했던 사람들은 원당사지에서 출토된 도자기·기와 등 공예품들을 당시에 사용했던 소비계층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고려 사람들이 향유했던 도자문화는 생산과 소비의 수급관계 속에서 시대에 따라 변화과정을 거쳐 가면서 진행되었다. 사실 고려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고려자기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 외에도 소비계층이나 소비지의 경제적인 기반 및 성격에 따라서 품질과 기종 또는 장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한국식해무리완굽이 성행했던 11세기 전·중반에는 생산지인 가마터가 서남해안 일대 및 경기도 일부지역에만 편중되고, 생산량도 적어서 소비계층은 『송사(宋史)』에 “민가(民家)의 그릇은 모두 구리이다”¹¹⁾ 라는 것

11) 『宋史』 卷487, 列傳 246, 外國3, 高麗, 大中祥符 8年(高麗顯宗 6年, 1015)條, “民家器皿悉銅爲之”.

처럼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생산된 청자는 품질이 좋고 나뭇을 떠나서 일부 특권계층에서만 소용되었던 것이다. 고려자기의 생산과 소비의 수급관계가 이전보다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생산지인 가마터가 내륙지방으로까지 보다 확대되는 11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제주지역 역시 이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고려사회에 있어서 특권계층이라고 하면 왕실·중앙귀족·지방호족·관리 등일 것인데, 불교국가였던 고려시대 승려 역시 귀족 대우를 받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에게 고려자기를 공급했던 한국식해무리굽 완 생산의 중심이 되는 가마터의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여기에서는 대접·접시·잔·완 등 다양한 기종의 고려자기가 생산되었지만 해무리굽 완과 같은 완 형식은 가마터 출토량의 50%에 달한다. 이처럼 백자나 청자로 제작된 해무리굽완은 당시 고려자기를 생산함에 있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던 것이다. 그만큼 이 완은 당시 생산된 고려자기 소비주체세력인 왕실·귀족·사찰 등에 의해 널리 선호되던 특별한 존재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불교에서 선종(禪宗)의 발달로 왕실과 사찰에서 수양과 각종 행사의 필수 품목으로 차[茶]가 중시되면서 국산 청자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가마터에서도 다완(茶碗) 같은 다구(茶具)류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었다.¹²⁾

해무리굽완은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특별한 용구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제작되기 이전인 9세기경에도 중국에서 제작된 청자나 백자의 해무리굽완을 수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흔적은 경주 안압지(雁鴨池)와 황룡사지(皇龍寺址),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 보령 성주사지(聖住寺址) 등 여러 유적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원당사지의 예와 같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해무리굽완 출토 사례는 고려 초·전기의 시기를 갖는 관아지·성지·사찰터·분묘 등의 소비지유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이하게도 분묘유적 외 생활 거주지로서는 고려시대 사찰유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령 성주사지(그림 7), 안성 봉업사지(奉業寺址), 논산 개태사

12) 장남원(2006), 앞의 책, pp.88~96.

지(開泰寺址), 익산 사자암(獅子庵), 화순 운주사(雲住寺), 충주 송선사지(崇善寺址), 청주 흥덕사지(興德寺址), 사천 자복사지(資福寺址), 남원 만복사지(萬福寺址) 등 고려 초기·전기 창건시기를 갖는 사찰유적 발굴조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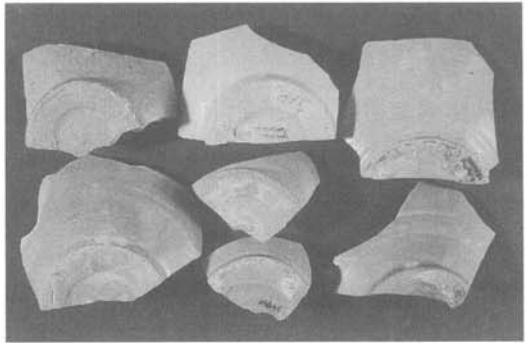


그림 7. 해무리굽완, 성주사지

거의 빠짐없이 발견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 고려시대 사찰은 해무리굽완을 비롯한 고려자기의 소비계층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한국식해무리굽완의 출토양상은 원당사지 이외에도 수정사지(그림 8), 목관아지 등 관아로 추정되는 곳이나 사찰터에서만 발견되고 있어 다른 지방 사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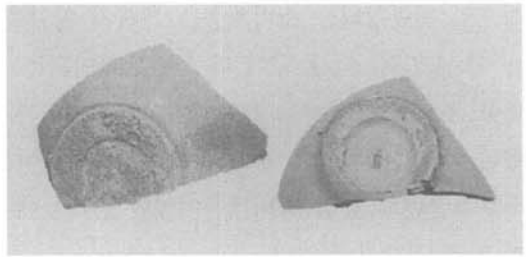


그림 8. 청자해무리굽완, 수정사지

동일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제주지역에서도 한국식해무리굽완은 관아나 사찰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케 한다. 즉, 한국식해무리굽완 단계에 있어서 제주지역에서도 생산지와의 유통을 통한 고려청자 소비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당사지, 수정사지 등에서는 한국식해무리굽완보다 앞선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다. 다시 말해 탐라시대의 적갈색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는 목관아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원당사지, 수정사지 등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고려청자의 소비계층이 새롭게 정주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 유적의 조성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당시 한국식해무리급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비계층은 시대상황이나 다른 지방의 출토된 예를 보건데 관청이나 지방호족 또는 사찰로 축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당사지는 원당봉(170.4m) 자락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해발 63~65m 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관아가 들어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원당사지 유적은 지방호족 거주지나 승려들의 수행처인 사찰이었을 가능성으로 좁혀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 원당사지 발굴조사에서 나온 출토유물 구성 비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당사지의 도자기는 고려 전기뿐만 아니라 중·후기, 조선 전·중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폭 넓게 존재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끈다. 한 공간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도자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만큼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소비계층은 흔하지 않았을 것이다.¹³⁾ 그리고 원당사지는 암·수키와, 막새 등이 다량으로 확인되는 기와 출토양상에서도 보듯 건축물 조성과 운영에는 든든한 경제적 기반과 함께 후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당사지는 지방호족이 거주하는 공간보다는 한국식해무리급완의 중심 소비계층이었던 승려들에 의해 조성된 사찰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 원당사지에서 출토되는 도자기 가운데 약 80% 정도가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류들이고,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분청사기와 백자의 출토량은 매우 빈약하다. 기와 파편 역시 대략 90% 정도가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어골문이 차지하고 있는데, 목관아지에 보이는 조선시대의 청해파문(靑海波文)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아 고려시대에 집중된 도자기의 출토

13) 『고려사(高麗史)』 문종(文宗, 1046~1083) 12년(1058) 8월조에 보면 “...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오직 고기잡이와 배를 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탐라에서 목재를 베고 바다를 건너 사찰을 새로 짓는데 그들의 피로가 대단하였는데...” 라는 내용이 있다. (『高麗史』 卷8, 世家 文宗 12年 8月條) 이 기록은 11세기 탐라의 일반 사람들은 육지부 생산지에서 들어온 고려자기를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을 말해 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양상과 거의 일치한다. 이런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건물지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 특이한 것은 원당사지에서 조선 전기의 유물이 빈약한 현상은 고려시대에 창건된 법화사지와 수정사에서 상감·인화·철화분청 등 조선 전기의 예가 다수 보이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원당사지에 들어섰던 사찰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사세(寺勢)가 급격히 위축되어 사찰로서의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원당사지 출토 도자기 현황

시대 출토지역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국 도자	계
	청자	백자	흑유자기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기	도기		
1구역	35	1	-	1	2	1	-	-	40
2구역	46	-	1	-	13	-	2	2	64
3구역	-	-	-	-	-	-	-	-	-
4구역	-	-	-	-	-	-	-	-	-
계	81	1	1	1	15	1	2	2	104

이와 같이 원당사지는 한국식해무리급완 소비계층에 의해 조성된 사찰유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원당사지에 들어선 사찰의 최초 조성시기, 즉 그 창건시기는 고려 전기에 속하는 11세기 전반에서 중반 사이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이에 원당사가 17세기 중반 이전의 기록에 전혀 없다고 하여 고려시대 사찰이 아니라는 견해는 향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당사지의 사찰은 11세기 전반에서 중반 사이에 창건

14) 이 시기의 탐라는 『고려사』의 정종(靖宗, 1034~1046) 즉위년(1034)에 불교의식이 강한 국가의례인 개경 팔관회(八關會)에 참석했든지(『高麗史』 卷6, 世家 靖宗 卽位年 11月), 문종(文宗) 11년(1057)에는 육지부의 사찰 창건에 탐라의 목재와 인력이 동원되었다(주 13. 참조)는 기록에서 보듯 고려 불교문화와의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탐라로의 육지부 불교문화의 유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된 후 계속 운영되었기 때문에 처음 사찰의 창건은 고려 후기 실존인물인 기황후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이때 처음으로 창건된 사찰의 이름이 '원당사'였는지는 아직 까지 관련된 기록이나 명문기와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 그런데 단종 2년(1454)의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제주의 봉화(烽火) 9곳 중 '원당(元堂)'이란 이름이 나온다. 이 지리지는 1454년에 완성되었지만 세종 6년(1424) 왕명에 의해 시작되어 세종 14년(1432)까지의 8년 동안 조사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15세기 전반기의 제주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1653년 『탐라지』가 간행되기 훨씬 이전에도 이미 '원당'이란 이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전반에도 '원당'의 지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선시대 이전에 '원당사'라는 이름의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원당사지에서 출토된 청자해무리굽완을 중심으로 유적은 언제 조성되고, 그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려 하였다. 원당사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8점의 청자해무리굽완을 내저원각·굽 크기·접지면의 특징에 따라 우리나라 해무리굽완 4형식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원당사지 두 형식의 해무리굽완은 C형식 한국식해무리굽완과 D형식 퇴화해무리굽완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원당사지에서는 A·B 두 형식의 해무리굽완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한국식해무리굽완인 C형식의 제작시기를 유적 조성의 상한시기로 추정하였다. 원당사지의 한국식해무리완은 굽지름이 6.0cm 내외이고 접지면은 1.0~1.4cm 정도로 제작된 것으로, D형식 퇴화해무리굽완과 함께 제작되던 한국식해무리굽완의 예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추정을 뒷받침한다. 원당사지 최초 조성시기는 한국식해무리완굽이 왕성하게 제작되던 11세기 전반에서 11세기 중반 사이가 될 것이며, 나

아가 탐라시대 적갈색경질무문토기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아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조성된 유적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당사지에서 보이는 도자기·기와 등 공예품은 당시 유적 조성에 참여했던 사람 또는 거주했던 사람 등의 소비계층에 의해 남겨진 유물이다. 원당사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11세기 전·중반은 가마터의 수가 적고 생산량도 많지 않아서 고려자기의 소비계층은 특권층 위주였다. 특히, 이때 원당사지의 한국식해무리굽완 같은 다완류는 생산량의 50% 정도 차지할 만큼 왕실·중앙귀족·지방호족·관리·승려 등 일부 소비계층에서 가장 선호되던 특별한 기종의 하나였다. 이 완은 고려 초·전기의 사찰유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사찰은 해무리굽완의 소비계층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당시 제주지역의 청자해무리굽완을 비롯한 고려청자 소비계층도 관리·지방호족·승려 등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당사지는 원당봉 기슭의 넓지 않은 공간에 위치한 입지조건,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폭 넓은 시기의 유물 출토양상 등을 고려할 때 관아 혹은 지방호족의 거주지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당사지는 조선 중기 이전의 기록에 등장하지는 않으나 11세기 전반에서 중반 사이의 창건된 고려시대 사찰유적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원당사지의 사찰은 고려 후기 14세기 인물인 기황후에 의한 창건보다는 훨씬 이전인 고려 전기에 창건되어 계속 운영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글은 유적의 상한시기와 성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됨으로 해서 고려 중·후기를 거쳐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원당사지의 변화과정을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각 시기에 해당하는 출토 유물과 유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고창석(2007), 『제주역사연구』, 제주: 세림.
- 김일우(2009),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서울: 신선원.
-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윤용이(2001), 『한국도자사연구』, 서울: 문예출판사.
- 장남원(2006), 『고려 중기 청자연구』, 이화연구총서 3, 서울: 해안.
- 고창석(2007), 「제주도내 사찰의 창건시기에 대한 관견」, 『제주역사연구』, 제주: 세림, pp.162~198.
- 이종민(2002),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 학위 청구논문.
- 전승창(2001), 「용인 서리요지 출토유물 검토」,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pp.15~32.
-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5),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 목포대학교박물관(1992),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 문화재관리국(1985), 『완도해저유물』.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원(1985), 『고창 아산담수물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박물관(1988), 『수정사·원당사 지표조사보고』.
- _____ (1992), 『법화사지』.
- _____ (1998), 『제주목관아지』.
- _____ (2000), 『수정사지』.
- 제주문화예술재단(2006), 「원당사지」,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pp.3~146.
- 제주시(1998), 『불탑사 - 5층석탑 실측조사 보고서』.

A Study on Period of Formation and Character in the *Wondang* Temple Site (元堂寺址) through Excavated Relics

Hyun, Moon-Phi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when the *Wondang* Temple Site was formed and what its character was. To closely examine period of formation for this relic, it paid attention to the excavated *Haemurigupwan* (tea bowls with *haemuri-gup*), and then compared it with 4 forms in *Haemurigupwan* of the country. As a result, the period of manufacturing of Korean-style *Haemurigupwan* (tea bowls with Korean style *haemuri-gup*) was regarded as the cap period for forming the *Wondang* Temple Site. In fact, Kilns in the first & mid 11th century, the former term in Goryeo (918~1392) in which Korean-style *Haemurigupwan* had been manufactured, was biased only to some regions, and was less even in production volume. Thus, the consumption brackets in Goryeo celadon limited to the privileged class. Likewise, even in Jeju, it was thereby limited to government offices, temples and barons. As for the *Wondang* Temple Site, the location conditions, or the consumption of Goryeo celadon which had been continued for about 400 years over the former term and the latter term in Goryeo within one space, was judged to be impossible unless it is a temple relic.

* General Manager,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Assets, Jeju Culture & Art Foundation

In conclusion, a temple seems to have probably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first half and the middle of the 11th century on the *Wondang* Temple Site. There is no relationship at all between the foundation of the first temple and Empress Gi (奇皇后, ?~?), who is a figure of the late 14th century in Goryeo.

Keyword : *Haemurigupwan* (tea bowls with *haemuri-gup*), Cap period, Foundation period, Consumption bracket

논문투고일 2009. 12. 04

심사완료일 2010. 02. 05

게재확정일 2010. 02. 15